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앞드려 왕께 경배하라 (마 2:1-12)

예수님의 탄생하신 언저리에는 베들레헴과 큰 별 그리고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1. 베들레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6절)

이것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베들레헴은 ‘벰’과 ‘레헴’의 합성어로 떡집, 빵집 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즉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떡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요 6:4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큰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절).

동방박사의 길을 인도할 정도라면 그 별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별 역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양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민 24:17).

여기에 보시면 한 별과 한 규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차적인 성취는 다윗을 통해서 이뤄졌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16).

믿음은 우리의 새벽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3. 동방박사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1절).

동방이 어디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견해들 중 동방은 바벨론이었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자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예언서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발견하자마자 그리스도를 찾아나서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한 곳을 열심히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을 다한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열심을 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Bow Down and Worship a King! (Matt. 2:1-12)

In Bethlehem there were bright stars and Wise Men around the place where Jesus was born.

1. Bethlehem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be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 (v. 6).

This word that the Son of God, King forever would be born in Bethlehem had already been prophesied by the prophet, Micah in the Old Testament. The Fact that Jesus was born is the fulfillment of the Old Testament.

Bethlehem which means a rice-cake shop or bakery is a compound word that is composed of ‘Beth’ and ‘hem.’ Bethlehem can refer to Jesus Christ’s Birth in a rice-cake shop or bakery having a special significance because human beings live on rice and bread. However, rice or bread here means ‘every word from the mouth of God’. Jesus Himself said, ‘I am the bread of life’ (John 6:48).

2. A Big Star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v. 2).

The star should be very big, inasmuch as it led the Wise Men’s way from the east. The star also had already been prophesied in the Old Testament.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a scepter will rise out of Israel. He will crush the foreheads of Moab, all the skulls of all the sons of Sheth” (Num 24:17).

Here, we can see the word, star and scepter appear. Though this word began through Abraham, it was fulfilled through the birth of Jesus Christ and the cross that Jesus bore.

“I, Jesus, have sent my angel to give you this testimony for the churches. I am the Root and the Offspring of David, and the bright morning star” (Rev 22:17).

It is our faith that we look at our morning star, Jesus Christ,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and move on ahead in it.

3. The Wise Men from the East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and asked” (v. 1)

There are many scholars who have their different opinions concerning the place where the east was. But Babylon is regarded as appropriate among those different opinions. And the Wise Men might have been Jewish descendants who were taken prisoners to Babylon. They migh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prophetic books such as Daniel, and might have studied the stars believing and waiting for a birth of Christ, the Messiah. Accordingly, upon finding the star, they vigilantly took the initiative to follow it to find the Christ.

My beloved Christians!

Just as the Wise Men vigilantly sought the birth place of Jesus Christ, we should enter into worship and praise, for God is faithful. It is God who has a mind to do His best.

By worshipping with enthusiasm our Lord Jesus Christ who came as the bread of lif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devoting your life with jo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PASSION WEEK 고난주간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2일(월)~7일(토) 오전 5~6시, 강사: 박노철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4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본당2층에서 박노철 담임목사의 설교로 진행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의 동참을 기도한다. 교회는 새벽예배 후 8층 식당에서 직장인을 위한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주일 4월 8일(주일)은 부활절로 오전 5시에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린다.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부장: 신용식 장로, 지휘: 고성진 집사가 준비한 부활절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금요일 4월 6일 금식 - 연합다락방으로

우리 주님이 못 박하신 성 금요일(4월6일)에 해있는 동안 금식하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도록 하며 부활주일에 드리는 금식헌금은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쓰여진다. 성 금요일 다락방 예배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저녁 8시부터 본당에 모여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으며 깊이 묵상하고 근신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 감사, 성장, 비전을 컨셉트로 한 이 사진전은 서울, 광주, 창원에서 잇달아 열린다. 또한 이 사진전에서 한국교회사를 사진으로 담은 자료들을 묶은 사진첩도 구입할 수 있다. 신앙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와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배경사를 사진으로 봄으로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성장에 크게 유익할 터이니 성도들의 많은 참관을 권장한다.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100주년 역사사진전

4월4일(수) - 10일(화) 서울미술관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택 사진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100주년 역사사진전(준비위원장: 이종윤목사)이 4월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서울미술관(서울 인사동)에서 열린다.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 장로교130년의 여정, 교회의 독립운동과 이웃 섬김, 장로교의 성장과 분열·연합의 과정, 선교대국으로서의 방향과 비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들이 사진으로 전시된

다. 감사, 성장, 비전을 컨셉트로 한 이 사진전은 서울, 광주, 창원에서 잇달아 열린다. 또한 이 사진전에서 한국교회사를 사진으로 담은 자료들을 묶은 사진첩도 구입할 수 있다.

신앙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와 오늘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배경사를 사진으로 봄으로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성장에 크게 유익할 터이니 성도들의 많은 참관을 권장한다.

장한 어머니상 시상 자녀 셋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하고 있는 이때에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1년 5월 1일부터~2012년 4월 30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20년 후에 찾는 장학금 통장을 5월 13일에 시상한다. 해당되는 어머니는 4월 30일까지 교구목사에게 신청바란다.

중등부, 부활절 기념 영어뮤지컬 4월8일 주일 오전 10:30 - 501호

중등부(지도: 노정호 목사, 부장: 이강진 집사)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을 주제로 한 영어뮤지컬을 공연한다. 일시는 4월8일(주일)이며 오전 10:30이다. 기획, 연출은 김희 집사, 안무는 한혜주 교사가 담당한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우리 다락방 자랑’ 기사 모집

순례자는 봄을 맞아 다락방의 따뜻한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자연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원고를 제출하실 분은 사무국이나 이메일 yoolulu@hanmail.net로 보내시면 된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3]

(문 38) 출20:13 말속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21:12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셨으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답) : 성경은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인자라 그 사회에는 폭력과 피 흘림이 있으며 따라서 살인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출20:13의 히브리어 성경은 rasah(살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중죄인에 대한 사형을 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목숨을 취한다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출21:12 말씀처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창9:6)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폭력과 피 흘림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 기록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정을 받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죽여리고와 같은 지역이나 아멜렉과 같은 부족은 하나님 명령에 복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범죄자들은 타락했고 도덕적 패배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죄의 압권처럼 그들의 타락상이 퍼져 나가게 한 결과로 멸절된 것입니다. 마치 현명한 의사가 칼을 들어 환자의 몸에서 위험한 암세포를 도려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 위험한 악을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셨던 것입니다.

칼빈은 6계명을 주석하면서 정당한 형벌이나 자기 방어와 같은 것을 금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파괴적 행동을 저지시킨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6계명은 이 세상에서 살인자가 되지 말 것과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살인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자라(미5:21-26)했습니다. 그 살인자는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로 생명이 경시되거나 멸시 또는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창조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생명경의 사상은 곧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6계명은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금식과 금욕생활로 자기 몸을 해하지 말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학하는 일은 곧 살인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제조업자, 남의 생명을 착취하는 고용주와 같은 이들은 간접살인자가 될 것입니다. 마약중독자, 투신자살자, 감정 폭발자도 모두 살인자에 속합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죽게 하는 이, 남을 파멸로 끌고 가는 이들도 살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 전염을 막기 위해 뿌리를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Palm Sunday 종려주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오늘, 4월1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데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레지원 자주일 (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뜻 깊은 주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부)

사순절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김광신 장로

공부해서 남주나 야단치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절대로 남주는 일은 없다 다짐하며 컸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남보다 더 나아가 하고 더 잘 나가야 했습니다. 공부도 일등을 하기 위해 애썼고 어쩌다가 뒤떨어지면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세했고 잘 나갔고 나밖에 몰랐으며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앞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더 이상 욕심도 없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출세하고부터 심령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둡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출세를 위해 내 전 생애를 바쳤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세의 본뜻을 오해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 출세의 기본인 줄 몰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봉사, 이웃을 위한 헌신이 출세라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

가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을 흘리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드린 기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길을 찾아가는 곳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탄생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신 기도에서 우리는 삶의 근본을 알게 되었고 돌이키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는 망하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사탄이 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만이 나를 살리고 이웃과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므로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찬 세상을 만드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행적

- ①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일요일, 막 11:1-11)
- ② 성전을 두 번째 정결케 하셨습니다. (월요일, 막 11:15-26)
- ③ 유대인과 마지막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화요일, 막 11:27-12:40)
- ④ 감람산에서 예언적 강론을 하셨습니다. (화요일 오후, 마 24:3-51)
- 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두 번째 기름을 부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눅 7:35-50, 첫번째는 막 14:3-9 참조)
- ⑥ 가롯 유다가 유대인들과 흥정을 벌입니다. (화요일 밤, 막 14:10-11)
- ⑦ 베다니에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수요일, 복음서에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
- ⑧ 유월절 준비와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목요일 오후, 막 14:12, 31)
- ⑨ 겐세마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막 14:32-52)
- ⑩ 안나스 앞에서의 야간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동트기 전까지, 요 18:12-13)
- ⑪ 가야바 앞에서의 다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동트기전까지, 막 14:53-72)
- ⑫ 산헤드린에서 아침 재판을 또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눅 22:66-71)
- ⑬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금요일 오전, 눅 23:25)
- ⑭ 헤롯 안디바 앞에 섰습니다. (금요일 오전, 눅 23:6-12)
- ⑮ 빌라도 앞에서 두 번째로 섰습니다. (금요일, 눅 23:13-25)
- ⑯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막 15:16-41)
- 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이전 곧 안식일 직전, 막 15:42-47)
- ⑱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토요일)
- ⑲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 막 16:1-8)



한미음 한가족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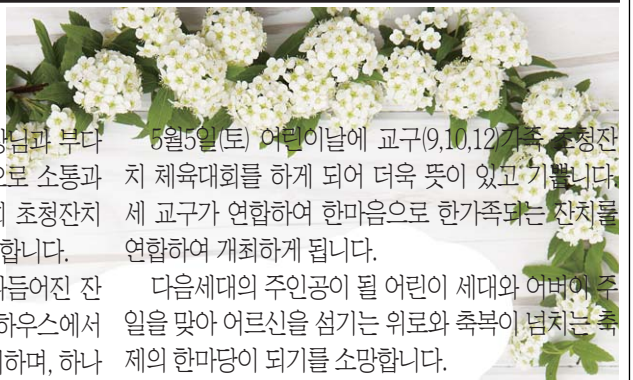
9, 10, 12교구가 함께 하는 한미음 한가족 잔치를 준비하며

최양진, 권장환, 최광성집사(9, 10, 12 부교구장)

은평과 만물 위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속한 교구는 넓은 지역으로 4개의 도(강원도, 충북, 충남, 전라도 경상도)와 5개의 구(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동)와 9개의 시(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이천, 성남, 용인, 오산, 안성)와 1개의 군(양평)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이번 한미음 한가족 초청잔치를 통해 각 교구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34개의 다락방장님과 부다락방장님들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소통과 친밀한 교제로 한미음을 이루어 체육대회 초청잔치의 참여를 통하여 다락방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확트인 푸르른 한강을 바라 보며 잘 다듬어진 잔디와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베델하우스에서 한미음 한가족 잔치를 하려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설레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5월5일(토) 어린이날에 교구(9,10,12)가족 초청잔치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더욱 뜻이 있고 기쁩니다. 세 교구가 연합하여 한미음으로 한가족되는 잔치를 연합하여 개최하게 됩니다.

다음세대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 세대와 아버지 주일을 맞아 어르신을 섬기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축제의 한미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각자 맡은 섬김과 봉사의 시간을 보내느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파안의 미소를 띄우지 않으시렵니까? 이땅위에 주어진 우리의 삶은 쉬 지나 가는데 정녕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시렵니까?

꿀맛 같은 점심시간과 푸짐한 상품과 가슴설레는 상품권 추첨과 신나는 게임 등,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한날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세 교구의 온 가족이 모두 동참하여 축제의 한미당, 부흥을 기대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기도 외에는 다른 류가...

- 전도에 왕도는 없다 -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소망하는 우리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를 잘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요청되는 명령 또한 전도이다.



요일 외에도 저는 틈나는 대로 전도하고 있지만 확실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목요기도팀의 허현숙 권사는 자신은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전도자 못지않은



심정으로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요일 아침이면 기쁨으로 달려와 수년째 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강력한 기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전도를 마치고 온 전도자들이 그 날의 전도 상황과 특히 기도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기도팀에 넘기면, 기도팀은 이를 보고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하므로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가끔은 전도 현장으로 지원을 나가며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우리교회 70인 전도대에는 축호 전도팀, 노방전도팀, 문서전도팀, 화요기도팀, 목요기도팀, 특례생 어머니 전도를 위한 기도팀이 있는데 이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의 다섯 개의 팀으로 구성된 축호전도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정해진 시간에 교회 주변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다. 이들은 올해 900명을 전도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성령 받아 전도하자"는 올해 전도대 표어처럼 매번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하며 비장한 마음으로 전도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바로 그 시간, 전도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화요기도팀(팀장 안명심 집사)과 목요기도팀(팀장 오중례 권사)이 그들이다. 전도팀과 기도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함께 경건회를 드린 후 전도팀은 전도 하러, 기도팀은 전도팀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도로 그들을 돕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이다.

전도 잘한다고 소문난 L집사님은 "전도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성령과 기도 뿐입니다. 화요일, 목

요일에도 저를 틈나는 대로 전도하고 있지만 확실히 화요일과 목요일에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목요기도팀의 허현숙 권사는 자신은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전도자 못지않은 심정으로 먼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목요일 아침이면 기쁨으로 달려와 수년째 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강력한 기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전도를 마치고 온 전도자들이 그 날의 전도 상황과 특히 기도가 필요한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과 기도제목을 정리하여 기도팀에 넘기면, 기도팀은 이를 보고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하므로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가끔은 전도 현장으로 지원을 나가며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확신이 매우 뛰어난 분이었지만 전도함에 있어서는 결코 자기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다고 고백 하며 교우들에게 항상 전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한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에는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전도지향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전파와 기도가 뜨거운 서울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4월4일(수) 한국장로교100주년기념 사진전을 개최한다. 4월7일(토) 사랑의 쌀운동, 올림바타르대학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를 한다. 한국장로교100주년기념학술대회에서 개최설교를 하고, 한국장로교 원로 학자들과의 패널(공개) 토의에 참여한다.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4.1) 뱀뱀전도회(4.8)

■ 금주의 식사 : 박권준 집사 김윤숙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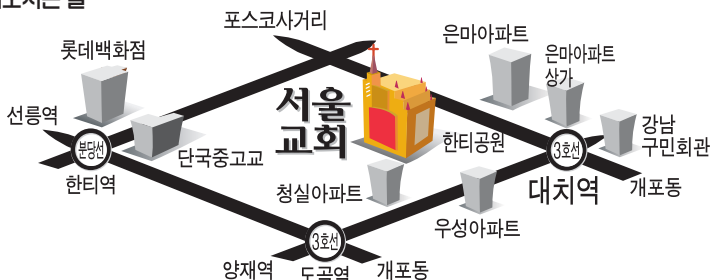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도록
2.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성금요일 오후 8시에 연합 다락방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3. 4월 4일(수)부터 10일(화)까지 열리는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 역사사진전을 통해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